

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2월 24일 (제99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겔 렴

절박한 심정으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싸움이야말로 용호상박(龍虎相搏)의 싸움 인지라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나는 누가 이길지 안다. 더 배고픈 놈이, 더 오래 굶은 놈이 분명히 이긴다. 더 절박한 놈이 이기게 되어 있다.

7, 80년대는 권투가 굉장히 붐을 이루던 시기였다. 4전 5기의 홍수환 선수나 장정구 선수 등, 세계챔피언 벨트를 거머쥔 자들이 많았다. 그들이 세계 제일의 선수가 된 것은 바로 '헝그리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권투가 가족의 생계였기에 죽기 살기로 연습했던 것이다.

얼마 전, 어느 장로가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나를 찾아왔다. 사실 그 사업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관여한 관계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다며 장로 부부가 찾아온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급박한 문제였다. 나는 장로 부부를 달래서 내보낸 후 바로 청바지 차림으로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내 나이에 청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것도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그만큼 절박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는 곧 해결되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너는 곧 죽을 테니 유언하라'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 이보다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 어디 있을까. 그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이었는지 심분 이해가 간다. 그래서 그는 체통이고 뭐고 팽개치고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울면서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간절기가 끊어질 만큼 애꿎은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궁 문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절박함은 기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아직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가?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직도 자존심 타령하고 있는가? 아직 덜 급하다. 분식 성공은 소망의 열도에 비례하는 법, 소망의 열도가 바로 절실함 아니겠는가. 돈이 필요한가? 취직되기를 원하는가?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하고 훈련하라.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게 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은 지난 2004년 나이지리아(Nigeria) 포트코트(Port Harcourt) 야외집회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자 육성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전기제품이 고장 났을 때, 우리가 AS 센터로 전화를 걸면 회사는 엔지니어를 보내 고쳐줍니다. 그 회사는 제품을 팔았기에 당연히 고쳐줄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병들어 고통 받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늘나라 엔지니어, 나 Pastor Lee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손길을 통

에 거지 주제에 시끄럽게 군다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지만, 예수는 바디매오를 주목하고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매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답했고, 원한대로 그는 눈을 뜨는 기적을 만났다. "네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곧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음성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저녁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고, 구하되 정욕으로 구하여 받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셨다.

"범죄신고는 112, 화재나 응급상황에는 119, 간첩신고는 113, 그리고 각종 민원콜센터를 통해 국가는 시민들의 문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무엇을 도와주랴?' 말씀하셨습니다(막10:51). 하나님께 전화하려면 먼저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화 배터리가 충전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를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가난과 병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집을 달라고, 직장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 정부와 언론과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지력 있는 자가 돕게 해달라고 기



나이지리아 포트코트 집회 광경

해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피를 흘려 우리를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책임질 의무가 있고, 우리는 달랠 권리가 있습니다. 다함께 예수를 큰 소리로 부르며 통성으로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전에 내린 비로 땅은 진흙탕이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졌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및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 성을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소경 바디매오가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다. 소경

를 해결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전화해도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어찌해야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기관이 운영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당당히 자녀의 권리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되 정욕으로 구하니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약4:2).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 하시며 우리에게 그 정보를 소상히 알려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만물을 들어 도와주시려 예비하고 계시건만 왜 구하지 않고 악한 마귀에 속아 어둠속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여, 이 말씀을 깨닫고 새해에는 진정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침노하여 하늘의 예비된 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우왕좌왕할 것인가? 깨달았으면 행동하자. 문제 앞에 허둥대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천의 의연한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한은택 목사

주일예배 시간 변경 안내

서울(2부)과 인천(1부) 예배 시간이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문의: 02-533-9191, www.jcc.tv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2:35~50)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신랑이 언제 오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적게 준비하고로 신랑을 기다리다 그만 기름이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그 래 부랴부랴 다시 기름을 사러 갔는데 하필 그 사이에 신랑이 온고로 결국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마25:13).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타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허리에 띠를 띠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눅 12:40).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인이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깨어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5:17~18).

제철소는 연중무휴 하루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꺼지는 순간 용광로에서 흘러나오는 쇳물이 파이프라인에서 굳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굳어 버린 파이프를 복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항상 가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연중무휴로 불이 밝혀져야 하고 뜨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제철소의 불이 꺼지는 순간 제철소 존폐의 문제가 제기되듯이,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놈들의 최종목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못된 것들을 쫓을 수 있고, 그놈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무기 없는 병사 꼴이 납니다. 당연히 백전백패하고,

그놈들에게 사로잡혀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구약시대를 지나고,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역사하시던 때를 지나 지금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모든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만민제사장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고로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과의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 입지 못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성령에 대해 침묵하고

며 사람들의 혼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는 마치 물은 많으나 정작 먹을 물이 없는 홍수의 때를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세례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최대의 복은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동그래지며 “성령이 뭘니까?”(행19:2)하고 되레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요한이 베냐민 회개 세례, 곧 물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세례를 주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

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마3:11)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빛은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

다. 고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역시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빛을 잃어 영혼이 캄캄한 곳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캄한 곳에는 도적이 날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귀신이 날뛰어 넘어져 다치고, 망하고, 꼬이고, 다 도적질 당하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추워지고, 냉랭해지듯 첫사랑을 잃는 것, 다 성령이 소멸된 탓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번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요20:22)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 삼서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는 말씀은 영혼이 우선적으로 잘되어야 만사가 형통하며 건강하다는 말씀인데,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

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휴대폰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전기에 꽂아 충전하듯,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를 잠깐 꽂아놓으면 잠깐 쓸 수 있지만, 완전충전하면 오래 쓸 수 있듯, 성령도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 충만함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곳도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는 고철덩이에 불과하다

핸드폰을 한번 충전하면 영원히 쓰나요? 자동차에 기름 한번 넣었다고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아니지요? 자주 넣어줘야 하고, 멀리 갈 때는 계속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듯 성령을 받았다고 천국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간당간당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충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고 율법에 얽매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 3:3).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육체로 시작했으나 성령으로 마치는 자는 복된 자이고,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자는 더욱 복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불행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했던, 그래서 성령으로 마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시51:11). 성경은 육체로 마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

여러분, 제철소의 불이 꺼지면 이미 제철소가 아니듯,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고철에 불과하듯,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주님이 짓고 계신 그 나라에도 넉넉히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상상력 부족

워런 버핏은 “투자자는 큰 실수를 피하기 만 하면, 몇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경우 손실 회피 노력이 무리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려는 노력 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영영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고, 실패해도 무리한 수익을 추구하다 실패했을 때보다는 훨씬 견딜만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손실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손실을 유발시키는 함정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실수의 원천이 주로 분석적, 또는 감정적이 되는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석상의 실수 중 특히 언급하고 싶은 유형이 하나 있는데, 막스는 이를 ‘상상력 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발생 가능한 결과범위를 전체적으로 그려보지 못하거나, 좀 더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상력 부족’은 매우 흥미롭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자는 대체로 미래를 상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미래가 과거와 매우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를 토대로(특히 최근) 미래를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는 과

거와 흡사하기 때문에 추정이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과거와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에서 추정은 실패하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역시 거액의 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집니다. 즉 뜻밖의 상황들이 발생하고, 단기간의 결과는 장기간의 가능성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상상력 부족’에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산에는 예상되는 수익과 리스크가 있으며, 이를 짐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이러한 상관관계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리스크 제어와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상력 부족’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극단적인 사건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첫 번째 원인이 있고,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 때문에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될 결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절대 상상력의 전원을 스스로 끄지 말라.”고 하시며, 인간은 상상력 속에 성장 발전하는 영존체임을 가르쳐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하고 상상력을 녹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시며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상상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신앙논객 ::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의 5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상카라(Thomas Sankara)는 생전에 ‘아프리카의 체 게바라’로 불렸다. 그는 19세 때 공군에 입대하여 공수부대 장교가 되었고, 주변국과의 국경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전쟁영웅이 된다. 정치권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극심한 빈부격차,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여성, 황폐해지는 자연환경에 처한 조국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그는 다방면으로 해결 방법을 강구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대통령에 취임한다. 그는 먼저 프랑스 식민지배의 잔재인 이전의 국명을 현재의 국명으로 개명하고 국가와 국기까지 모두 새롭게 바꾼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의 경제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 행정구역을 새롭게 나누고 각 구역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했고, 과중한 인도세를 과감히 폐지하고 토지 재분배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로, 상하수도 같은 사회 기반시설들을 구축했고, 90%가 넘는 문맹을 치유하기 위해 여러 학교를 설립했다. 일부다처제와 여성 할례의식을 금하는 한편, 여성

을 고위공무원직에 대거 임명하는 등 여성 인권을 신장시켰다. 그리고 피임을 장려하고 아동을 위한 예방접종도 대대적으로 시행했으며 에이즈의 실체를 아프리카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기도 했다. 마을마다 병원을 세워 근대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려 했고,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재녹화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의 개혁정책들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집권 4년 만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게 될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나 그런 그의 행보는 주변국의 독재자들에게 위협적으로 비쳤고, 결국 그들에게 포섭된 동료의 손에 암살당한다. 그를 죽이고 새롭게 정권을 잡은 그의 동료는 그간 실행되었던 모든 개혁정책들을 모조리 이전으로 되돌렸고, 부르키나파소는 다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하고 만다.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다. 항상 기도와 선교로 깨어 있기를 힘쓰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교회와 지도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는 현대 토목 건축물의 7대 불가사의로 불린다. 본시 금문교는 차고 거센 조류와 안개가 많은 날씨, 수면 아래의 지형이 복잡하여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된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뿌리에서 지혜를 얻어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 나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한다.

첫째, 다른 나무보다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둘째, 잔뿌리가 많으며, 그 잔뿌리가 습기 있는 곳을 찾아 수분을 공급해준다. 셋째, 뿌리가 큰 바위를 감고 있어서 폭풍이 불어 나무가 흔들릴 때도 반석을 휘감은 뿌리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문교를 시공한 설계자 역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우고 서로를 연결하여 다리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목사님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할 뿐이지 불가능은 없다’고 늘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안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2000년 전에 오신 반석이신 예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뿌리가 있으니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위로 열매를 맺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생명의 말씀 ::

행복은 셀프다

시간이 없다며 찢찢매는 이에게 물었다. 왜 그리 바쁘게 사냐고?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하였다. 많은 건물과 돈을 갖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이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그의 대답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냐고? 그의 대답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였다. 나이 지긋하신 철학자에게 물었다. 행복이 뭐냐고?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 회장에게 물었다. 행복이 뭐냐고? 그의 대답은 ‘그걸 위해서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추운 거리에서 적선을 기다리는 걸인을 만났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 생각되어 폐일언하고 물었다. 행복이 뭐냐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으면 행복한 것 아니냐고!

그렇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훗날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관을 바꿔야 할 때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가장 적은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만족이다.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욕구를 잠재우는 평정심이 행복이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며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탐내기 때문이다.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즉 ‘행복은 셀프다.’ 행복의 씨앗을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멋진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돼라. 멋진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마음을 데워준다. 잘난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이 돼라. 잘난 사람은 피하고 싶지만 진실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다. 대단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돼라. 대단한 사람은 부담을 주지만 좋은 사람은 행복을 준다.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행복했으면 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자신과 비교해야 할 사람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의 학생들은 이미 수많은 경쟁자를 이긴 소수지요. 그 정도면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굉장히 넘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곳에 있는 학생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을 명칭하다고 생각하며 비참함을 느낀다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그 이유를 ‘상대적 박탈감’에서 찾습니다.

이공계를 전공하는 하버드의 하위 1/3 학생들의 SAT 수학 점수는 하트윅 대학교의 상위 1/3보다도 높습니다. 점수로만 보면 하버드의 하위권이 하트윅의 상위권보다 더 우수하지요. 그러나 하트윅의 상위권 학생들은 압도적으로 원하는 학위를 받아 엔지니어나 생물학자가 되는 반면, 그들보다 SAT 점수가 더 높은 하버드의 하위권 학생들은 대다수가 전공을 포기하고 타 전공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버드의 하위권 학생들이 자신을 전 세계 학생들과 비교한다면, 자신이 상위 1% 안에 드는 똑똑한 사람인 걸 알고 자

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옆자리에 앉은 하버드의 상위권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로인해 전공마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비교라는 게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저는 비교를 하는 것도, 당하는 것도 극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자신과 비교를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제 자신’입니다.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를 비교해보면서 제 자신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혹은 안 좋아진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곤 합니다. 예전의 저는 말의 실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심하게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또 자존심이 세서 그렇게 실수하고 나서는 먼저 사과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제 기분보다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면서 말의 실수를 많이 줄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사

과 또한 먼저 하고요. 이걸 과거와 비교할 때 제 스스로를 칭찬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예전에 비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전엔 괴로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방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요새는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기도를 합니다. 과거의 저와 비교하면, 현재를 점검하고 반성하게 되며 저를 일으켜 세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 하버드의 하위권 학생들이 자신을 옆자리에 앉은 상위권 학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다라면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똑똑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입니다. 얼마나 더 실력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형편이 나아졌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이제는 타인이 아닌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수필가 윤세영의 글에서 읽은 재미난 에피소드입니다. 정년퇴임을 한 교수가 방송 출연을 요청받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수위에게 물어보려고 갔는데 질문을 하기도 전에 경비 아저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퇴직해서 소속이 없어진 교수는 당황한 나머지 “저, 집에서 왔는데요.”라고 대답해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호탕하고 대찬 다른 교수

님도 동일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분은 당당하게 “여보시오, 어디서 왔냐고 묻지 말고 어디로 갈 것인지 물어보시오. 나 ○○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왔소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제자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모시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교수님 말씀은 다 철학적이네요.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왔느냐보다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복음서가 가사처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세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영생에 이르는 길 ::

어머니의 사랑

이번 주는 지난 설 연휴의 여파로 꽤나 길게 느껴집니다. 구정에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느라 다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탓이었지요. 반면 가족들의 몇 마디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고향에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흩어져서 노는 나홀로족이 많아진 요즈음의 연휴 분위기는 안타깝습니다. 결혼, 취업, 자녀, 승진 등의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한마디씩 하는 가족들의 말에 속상할 때도 많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자녀들이 최고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내 아이가 왜 결혼도, 취업도 안하고 있을까?’ 싶은 마음에 질타의 형태로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특목고에 입학할 때의 일입니다. 지금 물가로 환산하면 500만 원 정도의 입학금은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

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합격하고도 차라리 용산고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돈 때문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든 해줄 테니 일단 특목고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의 수준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친구들과 만나고 그만큼 수준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특목고에 진학하여 소위 있는 집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은 의사, 판사, 변호사 등 사회 각층의 리더가 되어 제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집이 무척 힘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것이 특별히 기억이 나지 않는 건 그만큼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여유 있는 사람이 되라며 친구들과 놀 때도 위촉되지 말라고 용돈을

늘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점심도 걸려 가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속상했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유 있는 제 성격은 그때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가끔은 티격태격 싸우는 일도 많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사한 건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해선 ‘할말하얏’ 해야 할 듯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많아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백번을 태어나도 지금의 부모님의 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그 뜻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화 성도

realdialog@naver.com

:: 신앙에세이 ::

엄마에게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낙원으로 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그곳 생활은 좋으시죠? 주님과 또 천사들과 함께 하며, 말 그대로 낙원 생활이시겠지요?

저희들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하늘에서 보시면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느라 더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고 많이 힘들었어요. 학생이었던 제가 지금은 아이 둘 있는 어엿한 가장이 되었는데도, 문득문득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특히 종종 ‘엄마가 아직도 이곳에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후회라면, 가장 큰 슬픔은 그리움인 것 같아요. 다시 만날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계신 천국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하시려는 거겠지요?

엄마가 떠나신 후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단 한 가지는 관계뿐이라는 것ですよ.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유한한 시간을 그 관계들에 얼마만큼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ですよ. 그래서 예배,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대한 가지려 노력하고, 또 제 삶 속 소중한 이들과 좋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 따뜻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도도 잘해야 하는데 늘 마음만 앞서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시간을 엄마에게는 쓸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려 오네요.

사랑해요, 우리 엄마. 훗날 낙원에서 볼 날을 그리며….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ofriendly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신앙과 삶의 개혁을 이루라